



發行人：會長 沈宜洛
編輯人：文化理事 沈載緒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7-9339
FAX：(02)2269-7755
印刷：청송그래픽스
(02)2261-0772

5월 가정의 달<12면 발행>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3년도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결과보고



▲ 정기총회 의락회장 인사 장면

◇ 일시 : 2013년 4월1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성균관 유림회관 (서울 종로구 명륜동)

교육내용 : 대총회 소개, 대총회 홈페이지
현조사적 및 충효사상 특강

【의안 및 결의 사항】

I. 2012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 승인

1. 사업실적 보고

1). 5처묘소 및 2壇所의 수호

- 가) 시조묘소(靑松) : 시조묘소에 돌레石 보수
나) 2세조 영모재(咸悅) : 담장 및 돌계단 보수공사 외
다) 3세조 묘소(安城) : 안성회관 외벽 방수 및 보수
라) 4세조 묘소(漣川) : 주변 식재 소나무 소독, 잔디
보수, 벌초
마) 4세조 배위(淸州) : 건물 방수 및 화장실 보수 하
타 설치
바) 2壇所(철원·淸송)
- 철원 봉익공, 청송 악은공 壇所는 대총회와 봉익
공 및 악은공종회에서 수호에 만전

2. 종재의 관리 : 동. 부동산 전허 손실이 없도록 관리
에 최선

3. 교육문화

- 가) 장학금 지급 諸 규정 제정('12年 7月 17日 회장
단회의 시 의결)
- 장학회정관 제정으로 2013년도부터 장학금 지급
나) 편집위원회
- 1회 개최(2012년 3월 29일 정기이사회 시)

4. 지방순회 뿌리교육

- 가) 일시 : 2012년 8월 18일
장소 : 江原道 原州市(카톨릭센터)
후원 : 원주·형성종회(회장 : 정보)
참석인원 : 131명

2. 결산승인

일반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Table with 4 columns: 과 목, 2012년 예산, 2012년 실적, 예산대비 증감, 비 고. Rows include 수입, 지출, 당기순이익, 법인세, 법인세차감 후순이익.

3. 잉여금처분 내역

- 제19기(당기 2012.1.1~2012.12.31)
- 잉여금 처분 확정일(2013. 04. 18)

• 일반회계 (단위:원)

Table with 2 columns: 과 목, 금액. Rows include 장학금지급 준비금, 장학기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특별회계 (단위:원)

Table with 2 columns: 과 목, 금액. Rows include 목적사업회계전입 (장학금지급준비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II.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1. 사업계획

1). 5처묘소 및 2壇所의 수호

- 가) 시조(靑松) : 찬경회관 외부 방수 보수공사(창문)
나) 2세조 묘소(咸悅)



▲ 상군(부산) 대총회이사 3천만원 장학금 전달 (代, 재덕 부산청송회 회장)

- 묘소입구 잔디보수 정화사업
- 영모재 앞마당 보수공사
다) 3세조 묘소(安城)
- 3세조 묘소 진입도로 보수공사
- 3세조 배위 묘소 진입로 공사(道基洞)
- 위토 경계 측량(3필지)
- 안성회관 주방내부 변경(3층 재실)
라) 4세조 묘소(漣川)
- 묘역 잔디보수 및 주변 소나무 살충제 소독
마) 4세조 배위(淸州)
- 청주회관 외부 균열 보수공사(3월 중)
바) 2壇所(철원·靑松)
- 철원 봉익공, 청송 악은공 단소는 대총회와 봉익
공 및 악은공종회에서 수호에 만전을 기함

2). 종재의 관리

- 가) 종재(土地·建物) 실사 추진
- 대상필지 : 총219필지(2,805,965㎡)
(청송44 / 함열71 / 안성51 / 연천36 / 청주17)
- 추진사항지목별 대장비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현지도지 실태과약(토지대장과 재산세부와 일
치여부)
차명재산 확인(公簿와 실제적 권리관계 등)
실사시 불분명 토지경계 : 필지별로 측량 확인 등

3). 교육문화

- 가) 장학증서 및 장학금 지급
- 수여방법 : 각 지역종회에서 4월 중 지급
- 예산액 : 5천만원(중·고생 80명)
• 수도권 : 2천만원 : 32명(중24명 / 고8명)
• 비수도권 : 3천만원 : 48명(중 36명 / 고12명)
나) 지방순회 뿌리교육(수도권)
- 일시 : 2013년 8월 10일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구청 대강
당(후원 : 공숙공종중)
다) 종보축쇄판 제작(종보 100호 발행기념)
- 제작시기 : 2013년 7월
• 소요자금 마련대책 : 족보예약금
• 2013년 8월부터 1권당 1만5천원에 보급
• 수권 포함 - 5만원 보급

2. 사업수지예산

(단위:백만원)

Table with 4 columns: 과 목, 2013년 '12년실적, '13년예산, 전년 실적대비, 비 고. Rows include 수입, 지출, 당기순이익, 법인세, 법인세차감 후순이익.

III. 기타사항

1. 부회장 및 감사 선임권 위임의 건

- 2014년 총회까지 부회장 또는 감사에 결원이 발
생할 경우 그 선임권을 회장단에 위임 한다.



▲ 의락회장께서 어택고문 백수 축하 꽃다발 증정

정기총회 표창 수상자

대중회 의락회장님께서 43회 정기총회에서 8명의 종친들께 공로패·감사패·표창패를 수여 하였다.

수상 종친 중에는 대중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신 재열감사님이 정기총회를 며칠 앞두고 별세하시어 동아일보 편집실장 장남 규선 일가가 대신 공로패를 수여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선친이신 재열 감사의 유언에 따라 5백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해 주셨다.

感謝牌

(주)에스피시스템스
代表理事 沈相均

宗親께서는 青松沈氏 22代孫으로 창의적인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투철한 충. 효 정신으로 부산광역시중회는 물론 대중회 발전을 위해 先導의 역할을 하 셴으며 대중회 장학사업 元年에 巨金 三千萬원을 장학기금으로 쾌적하여 「青松沈門 英才有成」의 기틀을 마련해준 功勞는 우리 宗人이 이어가야 할 본이 되므로 그 뜻을 높이 찬양하고 門中을 대표 하여 衷心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뜻을 이 牌에 담아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功勞牌

監事 沈載烈

宗親께서는 大宗會 文化理事로 13년간 在職(1998년 1월~ 2011년 3월)하면서 「青松沈氏宗報」編輯人으로 卓越한 文章力과 熱意를 다하시어 오늘에 이르게 하여주신 功勞가 至大하므로 宗報 100號 發刊에 즈음하여 功勞牌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功勞牌

畫伯 沈敏燮

宗親께서는 大宗會에서 發刊하는 青松沈氏宗報에 1998년 1월부터 現在까지 「沈영감」 만화를 16年間 獻身的으로 奉仕해 주셨고 宗報 編輯業務에 남다른 熱意로 寄與해 주신 功勞가 至大하므로 宗報 100號 發刊에 즈음하여 功勞牌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表彰牌

理事 沈載文

宗親께서는 崇祖敦睦 精神으로 建設業을 營爲하면서 大宗會 傘下 建設工事を 實費로 施工하여 宗會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므로 感謝한 마음을 이 牌에 담아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表彰牌

宗有司 沈能光

宗親께서는 崇祖敦睦 精神으로 建設業을 營爲하면서 大宗會 傘下 建設工事を 實費로 施工하여 宗會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하므로 感謝한 마음을 이 牌에 담아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功勞牌

理事 沈國鎭

宗親께서는 우리 青松沈氏大宗會 創立以來 始祖에서 5세까지 墓所와 住所 및 寫眞帖을 製作 普及하였으며 15세까지 各派 顯祖님들의 行蹟을 國譯하여 「宗中寶典」의 冊子를 發行 配布하고 「青松의뿌리」編輯委員으로 宗會發展에 功이 至大하므로 感謝한 마음을 이 牌에 담아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表彰牌

理事 沈容圭

宗親께서는 青松沈氏 始祖이신 文林郎의 24代孫으로 崇祖敦睦精神이 투철하여 20餘年間 先祖墓所祭享의 參祀는 물론 庚辰譜 編纂, 宗會報 發刊, 讚慶會館 管理와 門中의 哀慶事에도 獻身的으로 參與하여 宗人들의 龜鑑이 되었기 이 에 表彰牌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表彰牌

理事 沈仁輔

宗親께서는 崇祖敦睦 精神이 透徹하여 始祖·2世祖·3世祖·4世祖 春秋 享祀奉行에 獻身的으로 内外가 參與하시어 宗人間的 和合과 大宗會 發展에 龜鑑이 되었기 이 牌에 담아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추모사(追慕辭)



故 재열 대중회 감사

재열감사님께서 가신지 어언 2개월여가 되어갑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 하였건만 가신 자리가 너무나도 크기에 허전한 마음 금할 길 없어 두서없는 추모(追慕)의 글을 몇 자 적어 올리웁니다.

공께서는 1996년 청송심씨종보 창간호의 편집인으로 출발하시어 2011년 편집인을 떠나실 때까지 전국 종인들의 화합과 대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었습니다.

또한 「경진보(庚辰譜)1998~2000」 발간 시에는 발간위원회의 간사로서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시어 대중회의 재정자립에 크게 공헌하시었으며, 「대중회40년약사」 편찬위원장으로 대중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약사를 편찬하셨고, 종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위토대장 작성 등 공의 업적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문화이사 퇴임 후에도 대중회의 감사로서 거의 매일 출근하시어 경험 없는 대중회 집행부원들을 열성으로 지도해 주시고 종사 업무 지도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향 청송의 찬경회관(讚慶會館) 건축 시에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하여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상주하시며 공사를 관리감독 하시어 가장 경제적으로 훌륭한 회관을 건립하셨습니다. 공께서 흘린 땀은 본향의 위상을 크게 높여 주셨으며 전국 종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 뿌듯합니다.

더욱이 중대산 묘소 앞 계단 조성 및 보광산 시조묘소 진입로 확장 공사를 주관하시어 성묘하시는 일가들이 걷지 않고 버스나 자가용으로 묘소 주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묘역 정화사업을 하여 대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대중회를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솔선수범 하시던 책임감과 추진력, 불같은 열정은 그 누가 따라 할 수 있을 런지요...

세간(世間)에서 회자(膾炙)되는 설(說)에 의하면 종사는 잘하면 본전이고 자칫하면 비난받기 십상이며 종재(宗財)에는 임자가 따로 없어 먼저 갖는 이가 임자란 말이 있습니다만 공께서는 생을 다하시는 날까지 종인들의 사랑과 대중회에 대한 걱정뿐이셨습니다. 종사에는 엄격하시어 부당한 요구는 친분을 떠나 단호히 거절하신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임종(臨終)하시기 며칠 전 대중회 집행부가 문병 갔을 때 저희들을 보시고 안심 하시는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던 감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 세상과 하직하는 순간에도 청송심문의 미래를 위해 장학기금을 기탁하라는 유언에 따라 아드님께서 출연(出捐)하신 고귀한 장학기금 500만 원은 심문 영재육성에 씨앗이 되어 심문의 옥토(沃土)에 뿌려지고 앞으로 500배, 50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집행부는 말은 바 직책을 끝내는 날까지 감사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 청송심문 전국종인과 대중회의 수호신이 되어 주시옵소서.

공께서 가심에 너무 아쉬워 두서없는 이 글을 올리웁니다.

부디 극락왕생(極樂往生) 하시옵소서.
2013년 5월 17일
대중회 상임부회장 상 화 再拜

公 청송심씨대중회 2013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 개최 告

대중회정관 제17조 및 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오니 전국 종인과 임원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6월 20일 (목) 오전 11:00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
 - 이사회(유림회관 3층) : 오전 11시 ~ 11시30분
 - 총회(유림회관 지하1층) : 오전 11시30분 ~ 12시
- ◇회비 : 1만원 (총회)

- 【부의안건】
- ① 종재관리 강화 등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② 종재관리를 위한 추경예산 승인의 건
- ③ 종재관리를 위한 이익잉여금 (안) 승인의 건
- ④ 기타

- ▶교통편
 - 지하철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 셔틀버스 운행(혜화역)
(운행시간 10:00 ~ 10:40)
- ▶연락처(대중회)
(02)2267-7857 (02) 2267-9339

2013년 5월 30일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宜洛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은 가정의 달이며, 5월 8일은 아버지 날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인류가 처음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변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를 있게 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라면 열 번이면 열 번 다 목숨까지 바칠 분, 그 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아버지이다.

어릴 적 나는 어머니가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실 줄만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

한 사랑을 주신 그분은 지금 함께 있지 않다. 너무나 빠른 세월... 아버지와의 대화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더 많이 대화하고 지금 이 시간이 부모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때이다.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 생각난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모습은 잘 나타나 있다.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참 모습을 깨닫고 아버지께 효도를 했으면 합니다.

- 문화이사 -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 하고, 겁이 날 때 허탈 웃음을 짓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과 딸이 학교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론 몹시 화를 내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그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 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열 곱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열 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 번 현관을 쳐다 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다.

아버지가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다.

아버지가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게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생각 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높을까?
12살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14살때 :우리아빠요? 세대차이나요.
25살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갔습니다.
30살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살때 :여보 우리가 이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50살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살때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두 배쯤 농도가 진하다. 아마 울음은 열배쯤 될 것이다.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에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 인터넷에서 발췌 -

沈영감 심민섭



삶의 유머

우유 이야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키웠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영~ 세계적 인물은 못될거 같아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요. 중학교를 올라가니...!!! 서울대학교도 가 힘들듯 합니다. 아쉽지만 한단계 낮춰야할꺼같아....!!! "연세 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실력이 형편없어 마음을 비우고 좀더 낮춰서 건국대학이라도 가라고 "건국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 건국대 근처도 못갈거 같습니다. 고딩2가되니 절대 지방은 안된다고 "무지방우유"를 먹였습니다. 고딩3이되니 다시 우유를 바꿨습니다. "저지방 우유" 로요.. 저어~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붙어주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 대중회 관리부장 -

★ 여운 있는 글 ★

황희정승의 아들 길들이기...

조선의 명재상 황희 정승에게 아들이 셋 있었다. 그 중에 막내가 골치다. 방탕한 짓을 하기 일쫓다. 황희는 노비들에게는 매우 관대하였지만 자식들에게는 엄격하였다. 막내가 잘 못하면 삼형제 모두를 불러 놓고 엄히 꾸중하였다. 그래도 막내만 악습이 고쳐지지 않았다.

하루는 밤에 관복을 입고 계셨다. "영감님 퇴골하셨는데 왜 또 관복을 입으십니까?" "오늘 손님이 온다하기에.. 으흠 '막내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갔다. 황희가 관복을 입고 막내 아들을 맞이한 것이다. "이제 들어 온 것입니까?" 막내 아들이 황공하여 대뜸 땅바닥에 엎드려 까닭을 청하였다. "나는 너를 자식으로 대하여 바른 도리를 가르쳤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를 손님으로 생각해서 손님을 맞는 예로 대하려고 한다."

이후 아들은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 황희가 큰소리로 야단만 쳤다면 아들의 버릇을 끝까지 고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지혜로운 황희정승의 교육법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의락회장에서 대중회 前 재검감사 공로패 수상 (代 규선 장남)



▲ 삼한국대부인 순흥안씨(소헌왕후 모친)묘 참배 인천총회 (2013.5.25)

중회탐방 시리즈-(9)

6世祖(諱:決)
靖夷公派 魚肥里 宗會

중회탐방기(9) - 정이공종중(靖夷公宗中)



沈錫鎔
정이공파종회 회장
대중회 이사

- 일시 : 2013년 5월 9일(목)
- 장소 :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321번지 종중회관
- 참석 : 석용 회장 외 15명
- 탐방자 : 대중회 문화이사(중보편집인)

1. 정이공(靖夷公) 종중의 연혁

가) 종중의 연혁

정이공(決)은 1419년(세종1)에 출생하시어 1470년(성종1)에 향년 52세로 생을 마치시어" 지금의 龍仁市 二東面 魚肥里 吐雲谷(토골)에 모시어졌다.

당시 조선조 세종 때의 영의정인 안효공(휘:심운)의 제3자로 태어났다. 아버지인 안효공(휘:심운)이 무술육사로 사사(賜死) 당하시고 나서 유복자로 태어난 후 어머니 순흥안씨께서도 천안(賤案) 몸이시어 누님인 소헌왕후께서 보내 주신 유모손에 의해 숨겨져 자라는 불행이 격게되어 등용길이 막혔다가 1450년 문종이 즉위하시자 부친 안효공께서 복관 되시면서 돈영부 주부가 되셨고 여러 관직을 거쳐 455년(세조1년) 지중추원사 영중추부사를 지내시고 시호는 정이공 이시다.

정이공(결)께서 1470년 작고하시어 장지를 과천으로 정하여 광중(曠中)을 파는데 상여가 노랑진 나룻터에 왔을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상여 구름장이의 끈이 끊어지면서 공중으로 날아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과발을 놓아 상여 구름장을 따라가게 하여 확인하니 현재의 묘 위치에 떨어져 과천의 神位地(장지)를 포기하고 현재의 어비리 토골 산소에 모시게 되었다고 전하여 왔다.

정이공(결)의 묘소는 오백여년간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산 56번지에 모시어져 있었으나 1988년 정화사업을 하고 3년 후인 1991년 용인지역 집중호우시 묘역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빠른 시일안에 복구하고자 노심초사 하였으나 이동 저수지가 가로막힌 지리적



▲ 정이공 묘소 입구

특성상 8년 후 가뭄이 극심하였던 1994년에야 대대적인 복구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2008년 8월 태풍의 여파로 묘소의 左右岸이 크게 유실되어 여러 차례 복구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저수지로 인한 악로를 극복 할 길이 없어 고심 끝에 문중회의 결론으로 이장 모실것을 결의하고, 2001년 9월 9일 지금의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산 69번지에 위치하여 배위 居昌愼氏와 합편으로 모셔져 있다.

2. 종중 집행부의 구성 및 연혁

정이공 종중의 회장단 임기는 3년주기로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서 추대 또는 무기명 투표에 의거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 감사,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종원의 가입은 매년 정기총회 시 만20세 되는 종원으로 신고를 받아서 입회하기로 되어 있다.

2011년 11대(31기 회계년도) 현 종친회에 등록된 임원 및 종원은 총 76명으로 구성

- ▷ 회장 : 석용
 - ▷ 역대회장 : 현옥, 응빈, 명옥, 응탁
 - ▷ 고문 : 應瑋, 민옥, 명옥, 한옥, 일옥
 - ▷ 부회장 : 應夏, 석주
 - ▷ 감사 : 대옥, 종옥, 석희
 - ▷ 이사 : 종옥, 태옥, 정훈, 석산, 석현, 석천, 석찬, 석은, 석구
 - ▷ 유사 : 석준, 석태
 - ▷ 총무 : 석문
 - ▷ 역대 총무·재무 : 종옥, 광영, 찬옥, 응탁, 석용, 석희
- 총 23명으로 구성

3. 회의기구 및 운영

1) 이사회

이사회는 종중의 대·소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여 종중관련 사항을 결의하여 집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소식지를 통하여 전 종원에게 통보를 하고 있다.(5회~6회 / 年)

2)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981년 第1期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1월 3째주에 실시하여 왔으나 宗中의 규모가 방대해 집에 따라, 2011년도 정기총회 시 4월 첫주 토요일에 하도록 의결하여(한식일 前後) 한식 참배도 하고 정기총회도 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부터 장서리 종중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4. 정이공 할아버지의 행적

년 도	왕 조	행적 및 비고
1419년	세종1년 出生	乙亥 1년 서울 誕生
1450년	문종 敦寧부주부(敦寧府主簿)	淸官職
1455년	세조1년 知中樞院事, 判敦寧府事	
1470년	성종1년 (52歲) 서거	용인 이동 어비리 토문곡 산56 묘소

5. 송조돈족(崇祖敦族) 사업

정이공(6世祖) 할아버지의 제향은 시향제(時享祭)를



▲ 정이공 묘소

모시고 있다. 본래의 시향일은 음력 10월 8일이었으나 시향일에 전국의 많은 후손들이 참석하기 위하여 매년 음력 十月 첫째 일요일에 第1次로 정이공 할아버지 時享節祀를 모시고, 이어서 第2次에 7世祖 以下 22世祖 (57位) 조상님의 시향절사를 정이공종회 장서리 회관에서 봉행하고 있다.

제향 봉행 방법의 축문 및 হল기는 안효공종회의 내용과 일치하며 2010년부터 應瑋 종친회장의 종중절사 봉행의 표준화작업 주도로 봉행하고 있다. 후손들의 한식절사 및 기제사에는 각 가정별로 가족묘원에서 봉행을 하고 있다.

본 가족묘원은 明玉회장 시에 묘원을 역사 하시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보시고 수행하심으로 지금의 묘원을 이뤄놓으셨다. 그러므로 후손들의 한식절사 및 기제사 시에는 편안하고 품위있게 조상님께 참배 봉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종친 가족중 불의의 사고로 作故 하였을 시에는 종중산에는 개별 매장(입관)을 못하도록 규약을 정하였으며, 반드시 화장(火葬)을 하여 규정된 유골함을 종중에서 제공함으로써 가족묘원(납골묘원)에 안치하도록 되어 있다.

6. 후손들의 함자 行列表

19세대	20세대	21세대	22세대	23세대	24세대	25세대	26세대	27세대
○潤	○鎭	○永	○秀	○應	○玉	○錫	○輔	○揆

* 1900년생(25세대孫)까지는 진사공派 行列에 준하여 운영해 왔었으나, 2000년생(26세대孫) 이후부터는 大同譜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다.

7. 정이공종중의 자랑

정이공종회는 과거 미흡하고 어지러웠던 종중의 자산관리를 1980년대 初 故(23세대)沈應斌 님께서 그 동안의 종중부동산을 종중가족 개인명으로 전해 관리 해오던 토지를 종친회 법인명으로 일괄정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 종중 가족들이 이의제기 없이 수년에 걸쳐 일사분란하게 처리 작업하였던 것이다.

그런 후 1981년 제1기 정기총회를 실시하여 금년도 제32기 회계년도까지 운영·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종중에서는 2년에 한 번 봄에 “청솔가족모임”이라는 야유회를 개최하여 고향마을이 저수지가 되어서 각기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사항이므로 고향의 얼을 되새기고자 “한마음 한 뜻” 으로 헤어진 가족들과의 대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계임도 하고 푸짐한 식사와 상품으로 나눔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매년 설 명절에는 65세 이상 되는 男, 女息, 정이공과 어비리 가족들에게 경로우대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미풍양식의 배려도 하고 있다.

따라서, 종중의 회의 모임이나 애경사(哀慶事)에 참석을 못한 가족에게 회장단에서 정이공 어비리 종중의 소식지를 2~3개월마다 발행하여 전 가족들에게 우편 발송을 하여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8. 회장 : 정이공종중의 향후 운영방침

정이공종중은 2000년 이전에는 종중의 자금이 고갈되어 위토 관련 세금 조차도 낼 수 없는 여건으로써, 종



▲ 정이공종중 가족묘원

원들로 하여금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각출하여 세금을 내는 상태라 종종 모임조차 기피하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2000년도 초 조상님들께서 이룩해 놓았던 위토의 일부가 정부의 수용에 따라 종종 이사회에 의결하여 매각됨으로 종종 재정이 해결되어 왔던 것이다. 그 바탕에서 오늘날 수원시 우만동에 307평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종종 건물을 증축 할 수 있는 입지까지 이루게 된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축건물이 완공 되어진다면 조상님들의 은덕으로 정이공 어비리 종원들의 후생복리에 더욱 힘 쓸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9. 대종회에 건의사항

1) 대종회 종보에 각종과에서의 장점관리로 하고 있는 사항들을 타종과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참고 할 수 있는 란이 있었으면 합니다.

- 2) 종보에 가정의 젊은아이들에게 보고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게재되었으면 한다.
- 3) 장학생 추천기준을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극빈가족을 선정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 정이공과 어비리종회는 30년 전에 훌륭한 가족모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항렬도 26세부터는 대동보 항렬을 쓰기로 결정하였고 종인들 간 화합이 잘 이루어져 전국종회의 모범적인 종회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이공종회의 훌륭한 재실과 잘 관리되고 있는 묘역등을 살펴 보면서 송조돈목을 실천하는 정이공과 어비리종회 종인들에게 찬사를 보내드리며, 한창 바쁜 농번기임에도 종회탐방에 협조하여 주신 석용 회장님과 임원진 및 종인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문화이사 -

■ 종회탐방 예정

- 7월(종보102호) 발행 - 7월초 탐방 예정
장소 : (의왕시)부사공종회(회장:榮燮)
- 9월(종보103호) 발행 - 9월초 탐방 예정
장소 : (춘천)신천공과 춘천종회(회장:상수)



▲ 석문 총무께서 종회 현황을 설명하는 모습

모 범 종 회 소 개

대구종회(大邱宗會)



심 홍 섭
대구종회장
대종회 이사
신천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구종회 제42차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13년 4월 28일(일요일)
- 장소 : 대구시 중구 매일신문사 11층

대종회보다 1년 먼저인 1970년 5월에 창립된 대구종회는 조직면이나 운영면에서 당연 모범적인 종회이다.

대구종회는 지역의 일가들이 화합 단

결하는데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1992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중·고생 4~5명씩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다가 최근에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2명을 선정 수여하고 있다. 대구 정기총회는 대종회 정기총회 이후로 개최하여 대종회 의결사항을 지역 종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세심한 배려와 총회준비도 빈틈없는 준비로 역사 깊은 종회임을 실감하였다.

종회 총재산은 4천여 만원으로 그리 넉넉한 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장학기금으로 5백만을 쾌척하여 신문 영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홍

섭 회장은 우리는 선조님을 숭모하며 일가 간에 친목을 다지며 명문가의 후예임을 잊지 말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 조선조의 명예를 되찾자고 강조하였다.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와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푸짐한 뷔페를 나누면서 일가 간에 화기에애한 대화를 나누고, 2부 행사로 노래자랑과 상품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대구종회를 보면서 한 핏줄의 뜨거운 정을 느꼈으며, 임원진 모두 봉사정신으로 종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감탄과 찬사를 보냅니다. <문화이사>



▲ 대구종회 정기총회 홍섭회장님 인사 장면



▲ 대종회 장학금 전달(대종회 문화이사)



▲ 대구정기총회 시 대종회 문화이사 축사

지방순회(수도권) 뿌리교육

문중의 뿌리와 역사를 배우고 종인들 간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수도권에서 실시하오니 일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자 : 2013. 8. 10(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구청 대강당
- ▶참석대상 : 청송심씨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남녀
- ▶연 락 처 : 02-2267-9339(문화이사)
- ▶찾아오시는 길
지 하 철 : 3호선 정발산역 4번출구
버 스 : 1000, 7106, 1100, 1500, 2000, 706, 707, 8880번
일산동구청 정류장 하차

▶교육일정표

진행 : 문화이사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 사	비 고
10:00~10:50	대종회 소개	대종회 문화이사	
	공숙공종중 회장 인사		
	청송심씨 선대사적		
11:00~11:50	나 자신과의 싸움	심갑보(대종회 부회장)	
12:00~12:50	점 식		
13:00~14:00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	심민섭 화백	종보 「심영감」 작가
14:00~15:00	대종회 홈페이지 소개	집행부	
15:00~16:00	용의눈물	동영상	
16:00~16:30	간식 및 선물		

*교재와 증식은 무료제공

- 주관 :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 의 락
- 후원 : 청송심씨 공숙공종중 회장 심 웅 섭

청송심씨 전국 종인에게 알려드립니다.

대중회의 재산인 3세조 청화부원군(휘: 龍) 및 배위 김씨 할머니 묘소가 있는 안성 소재 51필지 중 안성시 도기동 산 64 외 3필지의 일부분이 서운 ↔ 안성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그 수용보상금 316,936,000원을 안성중회(회장 광택)에서 2013. 5. 3. '청송심씨청화부원군과종중' 명의로 수령하여 대중회로 입금시키지 않고 있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대중회에서는 2013. 5. 14. 회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한 결과 안성에 사시는 안성중회 대표를 초청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승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에 따라 2013. 5. 25. 안성중회 경주 고문, 광택 회장 등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위 간담회에서 안성중회 측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이번에 받은 보상금을 3세조 할머니 재실의 신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대중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탁 회장님과 의면담도 회장님의 신병 때문에 불발되었다. 따라서 3세조 할머니의 재실 건축을 선행적으로 보장하면 입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회 집행부에서는 “안성중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정관 제 3조 2항(5처 묘소의 재산관리), 제14조 2항(의결정족수) 및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먼저 대중회로 송금하면, 안성중회에서 요구하는 3세조 할머니 재실 건축의 건을 대중회 의결기구에서 순리대로 심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설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대중회에서는 “위토 보상금을 대중회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고문을 내용증명으로 안성중회에 발송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춘식 감사가 「대중회 소유 부동산 등기명의와 관련한 재산관리 문제 고찰」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의견 진술에 갈음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2013년 5월 31일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 의 략

「대중회 소유 부동산 등기명의와 관련한 재산관리 문제 고찰」

- 대중회 감사 심 춘 식 -

지면 관계상 서면진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게재합니다.

1. 현재 대중회 소유 재산은 서울, 청송, 함열, 안성, 연천, 청주에 산재되어 있으며, 토지·건물 대장 등의 공부와 등기부에는 대부분 '청송심씨대중회'로 등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안성 소재 토지의 경우 51필지 중 37필지는 '청송심씨대중회'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3필지가 포함된 14필지는 1962. 3. 29. '청송심씨청화부원군과종중'으로 등기되어 있다.
3. 이번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안성에 사시는 경주 고문은 대중회의 입장과는 다르게 “안성중회가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송심씨청화부원군과종중'에서 수령한 것이다”라는 주장의 말씀을 하신다.
4. 그러나 대중회 정관 제3조 2항(5처 묘소의 재산관리)에서는 “등기명의가 상이해도 대중회에서 소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5처(청송, 함열, 안성, 연천, 청주)에 소재한 재산을 대중회가 40여 년간 평온 공연한 소유의 의사로 소유하고,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오면서 관리 유지하고 있다.
5. 안성지역 종인들은 보상금을 3세조 할머니의 재실 신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대중회에 수차례 전달하고, 의탁 회장님과의 면담을 청하기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6. 사실이 그러하니 2013. 5. 14 개최된 대중회 회장단 회의에서 안성지역 종인 대표들을 불러서 그분들의 진술을 듣고 대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결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7. 이번 간담회에서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송 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8. 이러한 경우 안성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안성지역 종인들이 '청화부원군과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대중회에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과거 토지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도 대중회에 전액 입금한 전례가 이미 굳어져 있는 터이니 법적 청구가 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2013년 5월 25일

어느 교수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이 교수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급에서 꼴찌를 했는데 성적표를 1등으로 위조해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후 그 학생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 17년 후 대학 교수가 되었고 유명한 대학의 총장까지 하게 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형편도 안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68,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하신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어느 대학총장의 고백, “나는 꼴찌였다” 낙서장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작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신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68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물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재. 이번에는 어찌다 1등을 했는가 배”하셨습니다. “명순(아버지)이는 자식 하나는 잘 났어. 1등을 했으면 책

거리를 해야재”했다.

당시 우리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떡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부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겉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멈추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

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드리기 위해 “어무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 해라, 민우(손자)가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前 경북대 박찬석 총장 글)

종·인·소·개

자랑스런 종친 - 심 상 균



심 상 균
대종회 이사
부산종회 회장
(주)에스피시스템스 대표이사

상균 부산종회장님은 시조 문림공의 제22대손으로서 안효공의 후손이다.

부산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으로 부산에서 존경 받는 CEO로 우리 심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부산지역 청송심씨 종회를 10여년간 이끌면서 늘 일가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 나누며 일체감 조성을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이바지하고 계시며 종친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종회 정기총회 시에는 매년 1천만 원의 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억 원이 넘는 찬조금을 내주시고, 금년 4월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개인 명의로 거금 3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出捐)해 주셨으며,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인재(人才)가 자원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부산의 모교에도 후학육성을 위하여 거금의 장학금을 출연하여 부의 사회 환원(還元)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훌륭한 종친이다.

또한 “예로부터 자식이 잘되면 父도 증직(贈職)을 받았다. 따라서 후손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곧 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효(孝)의 장학철학을 갖고 계시는 참으로 훌륭한 일가분

으로서, 대종회장학회 조직을 위해 준비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가장 먼저 청송심씨 부산지역종회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전국종인들의 기금 모금에 선도적 역할을 하셨다.

이번 상균 종친의 거금 3천만 원은 전국을 누비는 의락 회장님의 장학버스에 탄력을 실어주시리라 믿는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심문의 영재들은 마침내 심문을 이끌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될 것이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듯이 대종회에서 계획하고 추

진하는 사업에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격려로 지도 조언하고 지원해 주시는 상균 회장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대종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상균 종친께서 뿌린 장학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가꾸고 키울 것이다.

상균 회장님의 헌신적인 일가사랑과 인재육성은 대종회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어려울 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어둠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상균 회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 대종회 집행부는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문화이사 -

청송심씨대종회 장학금 기부

일금 30,000,000원

SP systems (주)에스피시스템스 대표이사 沈相均

대종회 탐방과 정기총회 참석 소고(小考)



沈成起
이학박사
대종회 이사
중보편집위원

청송 심문(靑松 沈門)은 훌륭한 인품과 선행이 500년 이상 쌓인 가문이 된다. 그만큼 우리 가문은 선근(善根)이 깊게 내린 가문이다. 무엇을 해도 형통(亨通)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조상님들의 음덕이 진하게 배어 있는 가문이기 때문이다.

나는 2012년도에 대종회에 가입이 되고, 2013년도 이사회와 정기총회는 처음이 된다. 최연소(最年少) 이사(理事)가 된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대종회 회관 탐방이었다. 대종회 회관을 이룸하여 찬경(讚慶) 회관이라고 한다. 어른이 되었지만 서울에서 나고 자라지 않아 아직 서울 지리(地理)에 대해 익숙치 않아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 620년 전에 경복궁(景福宮)을 만드시고 수도한 양을 설계하신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 할아버지께서 나의 할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에 안심이 되었다.

‘할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겠지!’

‘내가 설사 서울에서 길을 잃는다 해

도, 이미 할아버지께서 서울의 온 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이겠지!’

‘무엇보다도 청송 심문(靑松 沈門)의 할아버지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특별히 보살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생겼다.

도착하여 내가 본 대종회 사무실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특히 벽에 걸려진 역대 대종회 회장님의 사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중구청과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매우 인상적이다. 대종회가 서울의 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문화이사인 재서(載緒) 이사님이 건네준 차(茶)를 함께 나누면서 청송인과 청송예찬으로 담소를 나누는 후 정기총회 장소인 성균관 유림회관으로 향하였다.

정기총회는 300여명의 일가들이 모여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되고 진행되었다. 가문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과 지난 1년 동안 알뜰살림으로 6천7백만원의 흑자 결산 설명과 금년도 사업 계획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청송 심문(靑松 沈門)의 장학 사업에 거액을 기부하신 상균 일가분의 심문(沈門)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고, 의락(宜洛) 회장님의 장학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

다. 특히 백수(白壽, 99세)가 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나하고는 60년 이상 차이가 난다. 묘(妙)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곳이 종회(宗會)라는 것일까? 참석자 중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와의 만남! 행사 맨 나중의 만세삼창은 매우 인상 깊었다. 나라를 위해서! 청송 심문(靑松 沈門)을 위해서! 청송심씨 종인(靑松沈氏 宗人)을 위해서!

내가 청송 심문(靑松 沈門)의 정기총회에 갖는 생각은 청송 심문(靑松 沈門)의 정기총회는 1년 365일 중에서 우리 청송 심문(靑松 沈門)의 잔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일가들이 모여서 이 날 만큼은 가문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종인들 중에 가문을 빛낸 사람들을 찾아서 격려해 주고, 아픔을 당한 종인들을 위로해 주는 정기총회, 바로 그러한 정기총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종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청송 심문(靑松 沈門)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비유하자면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이 있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듯이 우리 가문에는 청송 심씨(靑松 沈氏) 대종회의 정기총회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청송 심문(靑松 沈門)의 시조(始祖)이시며 뿌리되시는 “심홍부(沈洪孚) 할아버지 오신 날” 아니겠는가!

정기총회를 마치고 춘천으로 오는 도중 지하철 역 안에서 경복궁을 현장 실습하고 돌아가는 초등학교생쯤 되어 보이는 모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4세조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 할아버지를 느끼고 볼 수가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 할아버지께서도 대종회의 정기총회 날을 아셨던 것 같다.

오늘따라 5월의 소나무가 더욱 푸르게 느껴진다. 청송 심문(靑松 沈門)! 아름답고 귀한 가문으로 더욱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

2013년 4월 18일



▲ 회의를 가득 메운 대종회 정기총회 모습

내 고향(故郷)

密陽 서병마을... 댐建設로 水沒, 失郷民의 아픔



지난 87년 가을 密陽군 三浪津읍 양수발전소 허부댐이 된 安台리 西屏마을에서 沈宅삼촌(沈在允)과 성모 후 기념촬영 했다.

내 고향은 경남 밀양군 삼랑진을 安台리 서병 마을이다. 이곳은 유명한 산이나 들이 있는 곳도 역사적인 유적이 있는 곳도 아닌 낙동강 하류에 인접해 있는 평범한 시골이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고향이다.

우선 나의 직계조상이 이곳에 정착하게 된 사실이 역사기록 속에서 확인된 점이다.

13대조이신 沈光世(應教公 1577 ~ 1624년) 할아버지께서 1613년(광해군5년)에 일어난 癸丑옥사에 연루되어 경남 고성으로 유배를 가시게 됐다.(당시 홍문관 교리-正5品) 그의 아드님이신 進士公(沈隱-16살에 司馬試에 합격함)께서

관계에 진출할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귀양지에 따라가 옆에서 모시고 계셨다.

이때 應教公께서 “나는 죄인이라 이런 해변 벽지에 나와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는 죄도 없이 어찌 나를 따라와서 고향을 하느냐? 그러다가 水土가 좋지 않은 이곳에서 병이라도 나면 부자가 함께 죽게 되니 그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가까운 곳에 善地를 선택해 살면서 내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했다. 그 결과 이곳 安台촌으로 祖母를 모시고 옮겨해 사신 것이 우리 집안 내력의 시초가 된 것이다.

그 후 仁祖反正으로 應教公께서 복직되시어 상경하였으나 李适의 난으로 피난한 仁祖임금의 行在所로 가던 중 부여에서 병사하셨고 進士公께서도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후손이 다시 이곳 安台촌에 정착해 살게 됐다는 역사기록을 지난 78년에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청송 심씨세적고(世蹟考)1권 1978년 맹춘(孟春 심상팔-解題12p참조)

應教公께서는 光海君이 東官에 있으면서 무설(誣設)을 믿으므로 이를 고치도록 건의했으나 미움을 받게 되자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강화도에 내려가 있

도 했다.

다음은 부친의 기업가 정신이 이곳에서 성숙돼 나에게 승계된 점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지난 48년에 부친은 고향을 떠나 대구로 이사하여 당시 대구 시청 토목과장 이시던 첫째 삼촌과 건설업을 하시게 되었다. 선친의 일관된 생각은 「내 자식들에게만은 절대로 무지와 가난을 물려주어선 안 되겠다」는 것이었다. 공사장 현장에서 인부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도 자식들이 공부하는 데는 조금의 불편도 없게 배려하였다. 부친께서는 공사현장에 출장 가셨다가 그곳에서 급성간염에 걸려 6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끝으로 내 고향 안태리 서병 마을이 지난 79년 삼랑진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허부 댐 용지로 수용돼 지금은 행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실랑민이 아니면서도 내 조상의 얼이 깃들고 내 잔뼈가 굵은 고향마을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호수로 변해버린 내 고향 안태리 서병 안태호 독에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12대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시던 일이 새삼 기억에 역력하다. 나도 나의 선조들처럼, 또한 내 아버지처럼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남기고 가야겠다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다짐해 본다.

(1989년 6월 1일 한국경제신문 발췌)



심갑보(沈甲輔) 대총회 부회장

■ 1936년생

■ 주요학력

- 영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영남대학교 대학원 명예정치학박사(2000.5.15)

■ 주요경력

- 삼익THK주식회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사장, 대표이사 부회장 역임 (42년 1개월)
- 삼익THK주식회사 상임고문(현재)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현재)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현재)
- 대한·서울 상공회의소 노사인력위원회 위원장(현재)
- 노사공포럼 공동대표(현재)
-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역임(15년간)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역임(10년간)
-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정책학부 겸임교수 역임

■ 주요상훈

- 국민훈장 동백장(노사관계 개혁 유공) 1998.2.11
- 금탑산업훈장(노사협력과 생산성향상에 기여) 2007.4.30
- 21세기대상(영업부문 관리대상)-2006.4.11.
- 대한민국 상품대상(마케팅 혁신부문) 2009.11.28

세(世)와 대(代)에 대한 고찰

■ 세(世)와 대(代)

世와 代는 같다. 혈통의 차례이며 全數 단위다. 世孫 代孫은 後孫을 헤아리는 단위이며 관계다. 代祖 世祖는 祖上을 헤아리는 단위고 관계이다. 世孫 代孫 世祖 代祖는 관계계촌이며, 世와 代에 1을 빼고, 世孫 代孫 世祖 代祖 칭한다. 世와 世孫 世祖 각각 구분해야하고, 代와 代孫 代祖 각각 구분해야 올바른 칭호가 성립된다.

世, 代, 世孫, 代孫, 世祖, 代祖 쉽게 설명드리면, 孫이란? 後孫을 뜻한다. 5世孫=5代孫이란 後孫명 수이며, 5명은 後孫명 수인 것이다. 祖는 祖上을 뜻하며 5世祖=5代祖는 祖上명 수이고 5명은 祖上명 수이다. 世=代는 전체 종인원 명 수인 것이다. 인원보고를 해보세요. 총 인원 6명 보고자 외 5명입니다. 즉 6世=6代이고 5代孫=5世孫인 것이다. 주기, 간격, 주년, 기간, 사이, 공간, 중간, 30년 등의 개념은 아니며, 계보를 연결하는 용어는 世, 代로 하며, 世孫, 代孫, 世祖, 代祖는 관계라 한다. 3世=3代=3명이며, 3世孫=3代孫=4명인 것이다.

세(世)와 대(代)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世)와 세손(世孫), 대(代)와 대조(代祖)가 다른 것이다. 世와 代는 혈통(血統)의 차례이고 世孫(=代孫)과 代祖(=世祖)는 先祖와 後孫간의 관계(關係)이고 호칭(呼稱)이고 호칭(互稱)이다.

世와 代는 기준이며 똑 같은 뜻이고 祖孫을 헤아리는 단위이다. 世와 代는 나를 포함하고, 代祖 世祖는 나를 빼고 치고, 世孫 代孫은 上代祖 기준을 제외하고 친다. 孫을 붙이면 上代祖를 제외하며 祖를 붙이면 下代孫을 제외한다. 世孫/代孫, 代祖/世祖는 관계계촌이고, 아들 손자 부 조부 증조부는 호칭이다.

※예를 들어보자!

25세인 재서(載緒)는 청송심씨 시조(始祖) 문림랑공의

24대손(24세손)이며 시조 문림랑공은 재서의 24대조(24세조)가 되시며 공숙공(6세조)의 19대손(19세손)이며 공숙공은 재서의 19대조(19세조)가 되신다.

1) 시조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25세라면 시조는 당연히 24代祖가 되고, 자신은 24代孫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世와 代가 달라서가 아니요, 世 뒤에 祖나 孫을 붙였기 때문에 한 代가 줄었음을 알아야 한다.

2) 世와 代는 같으며, 25世(代)를 예, 24世孫(代孫)이고 기준이 된 先祖는 孫에 포함하지 않는다. 24代祖 하면 자신이 기준이며 자신은 祖가 아니기에 기준인 자신을 빼야 한다. 즉 世와 代는 같은 것이고, 世孫, 代孫, 代祖 이럴 때는, 조(祖)와 孫이 붙으면 기준이 되는 世(代)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즉 世(代)를 뺀 代數 世數를 쓴다.

※25세(世)인 재서(載緒)가 만약 25世孫(代孫)이라 하면, 시조(始祖)를 시조의 1世孫으로 부르는 것과 같아 큰 망발(妄發)이 되는 것이다.

※도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관 계	代	기 준	世	관 계
4대조	5대	고조	5세	4대조
3대조	4대	증조	4세	3대조
2대조	3대	조	3세	2대조
1대조	2대	부	2세	1대조
0	1대	본인(나)	1세	0
1대손	2대	자	2세	1대손
2대손	3대	손	3세	2대손
3대손	4대	증손	4세	3대손
4대손	5대	현손	5세	4대손

■ 世와 代 기준표

- 1) 世=代=祖孫간 孫祖간에 차례 순서 이고 祖孫을 헤아리는 단위이다.
- 2) 世孫=代孫=기준인 上代祖를 제외하고 後孫만 헤아리고 祖孫간의 관계이다.
- 3) 代祖=世祖=기준인 下代孫을 제외하고 先祖만 헤아리고 孫祖간의 관계이다.

- 대총회 문화이사 -

화 고



삼가 고인의 명복의 빕니다.



심재열
대총회 前 문화이사, 대총회 前 감사님이 숙환으로 향년 8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부산총회장 모친상

부산총회 상군회장 모친께서 향년 9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심상팔
前 대총회이사 / 前 금당산 총회회장 / 前 광주덕림문중 회장께서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청송심씨대종회 장학회」는 우리문중의 자녀들만을 위한 장학회입니다



심재서
대종회 문화이사

■ 청송심씨 대종회 장학회 규약 제1조(목적)

본회는 우리문중의 후학 육성발전을 위하여 우리 종중과 대한민국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7월 17일 회장단회의에서 제정한 장학회의 목적입니다.
종인 일각에서 주장하는 「장학재단」 설립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전국 종인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 장학재단 설립 시에는

- 첫째**, 우리의 장학회 목적과는 다르게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법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설립허가 시에 붙일 조건)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둘째, 장학회운영이 심문이 아닌 외부인에게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심문을 위한 장학회가 될 수 없습니다.
※ 관련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할 법률 5조8항(감사는 이사와 특수 관계가 되면 안되며) 및 시행령 12조1항(재단이사는 20%를 초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감사3명(전부 외부인), 이사 10명(심문2명), 임원13명일 경우 심문의 임원은 2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심문만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학재단 운영이 뜻대로 안되어 장학사업을 취소 시 장학기금은 대종회로 환수되지 못하고 장학재단의 자산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자산이므로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40년 전에는 장학사업이 활발하지 못해 장학재단 설립에 그리 제한을 두지 않고 설립허가를 내 준 적이 있었으나(예 : 재단법인 찬경장학회 등)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자금유용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엄격히 공익법인 설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설립허가 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단, 학교동창회나 지자체는 예외로 '수혜자 한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자

기출신 학교학생이나 해당 지자체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이 경우는 세무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를 내주는 사례입니다.
不特定多數人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현재 많은 단체에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어렵게 장학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장학사업은 우리 심문만을 위한 장학회입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때는 공익법인으로 우리가 원하는 심문에게만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며, 운영에 문제가 되어 장학사업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장학재단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됨으로 장학재단 설립은 대종회가 추구하는 장학사업이 아님을 전국 종인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종중) 장학재단설립 문의처

- 문의처: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공익법인팀 (02)399-9520
- 대종회 문화이사 : (02) 2267 - 9339

장학회 규약

■ 청송심씨대종회 장학회 규약

제1조(목적)

본회는 우리문중의 후학 육성발전을 후원하여 우리 종중과 대한민국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소재지 등)

- ① 본회의 명칭은 청송심씨대종회 장학회라 칭하고 사무실은 대종회에 둔다.
- ② 장학회의 간사는 대종회 총무이사로 한다.

제3조(재원)

- ① 본회의 재원은 대종회 정관 제3조의 교육문화 사업비에서 충당한다.
- ② 우리 종인과 외부인사께서 기탁하는 장학 후원금은 일정금액이 될때까지 적립한다.

제4조(장학금지급기준)

- ① 1년간 지급할 장학금 총액 : 50,000,000원

- ② 1인당 지급금액 : 고등학생(500,000원)/대학생(1,000,000원)
- ③ 수혜 중.고생 비율 : 고등학생(60%) / 대학생(40%)
- ④ 지역별 비율 : 수도권(40%) / 비수도권(60%)
- ⑤ 지역별 인원과 금액 전 각항을 기준으로 매년 별도 조정한다(별첨)

제5조(장학생 심사 및 선발요령)

- ① 심사관
 - ㉠ 수도권 : 대종회 상임부회장 / 대종회 총무이사 / 재무·문화이사 / 인수부유공종회 총무이사 / 안효공종회 총무이사 / 악은회 총무 연명
 - ㉡ 비수도권 : 각 시·도청 소재지 종회장
- ② 선발기준
 - ㉠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 ㉡ 성적이 우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 ③ 장학금 신청서와 추천서 제출
 - ㉠ 장학금 수령 희망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12월 30일까지 해당 종회에 제출한다(지방은 해당 지역종회, 수도권은 대종회)

- ㉢ 각 추천기관은 관내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본 규약 제5조
- ㉣ 항의 선발기준에 의하여 배당된 인원을 선발하여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1월30일까지 대종회장에게 제출한다.
- ㉤ 장학금 수혜자 결정
대종회장은 추천된 대상자를 회장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2월 28일 까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지급)

매년 3월부터 각 지역종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감사)

본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는 대종회 정기 감사에 포함 한다.

제8조(부칙)

본 규약은 회장단회의에서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1) 이 규정은 2012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 2013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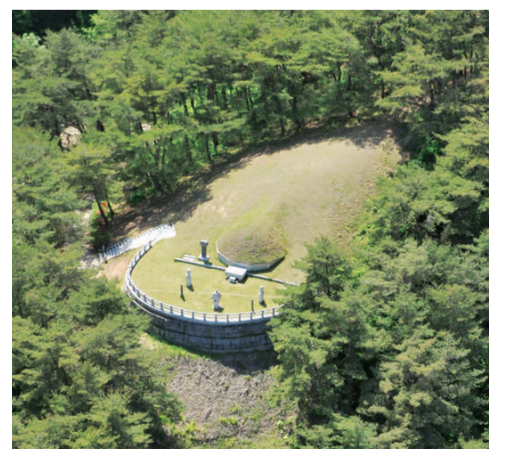
※ 관련 양식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대종회 총무이사 -

■ 50만원 이상 종보·장학금 찬조 종인(2회) 사진게재

심재열 대종회 감사	심응무 인천총회장	심상하 봉익공철원총회장	심상욱 캐나다총회장	심순보 마산수운공파소종중회 회장	심영섭 부사공종회장	심석용 정어공파어비리종회장	심광섭 서울/대종회이사
장학금찬조 5백만원 2013. 4	종보/장학찬조 80만원 2013. 1/4	종보/장학찬조 50만원 2013. 4	종보찬조 50만원 2013. 3	장학금찬조 50만원 2013. 4	종보/장학찬조 2백만원 2013. 3	종보찬조 50만원 2013. 3	장학금찬조 50만원 2013. 2
심재규 광주청광회 회장	심정보 원주/대종회이사	심광택 안성총회장	심완보 법국종중회장	심영구 울산내곡위총회장	심홍섭 대구총회장	심재영 풍덕공파종회장	심재룡 청주총회장
장학금찬조 1백만원 2013. 2	장학금찬조 50만원 2013. 2	종보찬조 50만원 2013. 2	종보/장학찬조 50만원 2013. 2	종보/장학찬조 6백만원 2013. 1	장학금찬조 5백만원 2013. 1	장학금찬조 1백만원 2013. 1	장학금찬조 1백만원 2013. 1

시조묘소 항공촬영



▲ 청송 원섭유사 2013년 5월 대종회에 제공

宗 事 消 息

始祖 文林郎公 (휘:洪孚) 春享奉行

4월 5일(한식)



▷조현 : 정구고문 ▷아현 : 갑보부회장 상옥부회장
▷종현 : 재춘 의양 ▷대축 : 양섭 ▷집례 : 완택



△ 시조 준향봉행 후 음복(갑보 대종회부회장 외)

中臺墓所 春享奉行

4월 5일(한식)



▷현관 : 재서(재무/문화이사)
▷집례 : 원섭(청송유사)

2世祖 閣門祇候公 (휘:淵) 春享奉行

4월 20일(음 3월 11일)



▷조현 : 정구(인수부윤공종회장)
▷아현 : 재룡(영주종회장) 영섭(부사공종회장)
▷종현 : 수길 규선 ▷대축 : 상직
▷집례 : 재욱

3世祖 靑華府院君 (휘:龍) 春享奉行

4월 22일(음 3월 13일)



청화부원군 배위
▷조현 : 민섭(도총제공종회장) 광택(안성종회장)
▷아현 : 재구 재룡
▷종현 : 무섭 용규
▷대축 : 용규 흥섭
▷집례 : 경주 경주

4世祖 靑城伯 (휘:德符) 春享奉行

4월 24일(음 3월 15일)



청성백
▷조현 : 민섭(도총제공종회장) ※우천으로
▷아현 : 상렬(관관공종회장) 회관에서 합사
▷종현 : 재규(광주청광회 회장)
▷대축 : 용규
▷집례 : 재욱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春享奉行

4월 26일(음 3월 17일)



▷조현 : 상각
▷아현 : 상오
▷종현 : 상도(대종회 이사)
▷대축 : 상홍(안효공 재무이사)
▷집례 : 상호(대종회 이사)

昭憲王后 祭享

4월 29일(음 3월 19일)



▷아현 : 무섭 안효공 상임부회장

仁順王后 祭享

4월 7일(음 4월 첫째 일요일)



▷아현 : 상경(대종회이사)

淑容沈氏 祭享

4월 21일(4월 셋째 일요일)



▷아현 : 상경(대종회이사)

宗 廟 大 祭

5월 6일(3월 27일)



▷정전 아현관 : 양섭 대종회이사



▷영녕전 아현관 : 대종회 재만이사

종회별(과거 11년간) 찬조 현황 (2002년~2013년 5월 20일 현재)

▶ 파종회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정보
봉익공파	봉익공철원종회(회장:상하)	2	晟	● ●
악은공파	악은공종회(회장:의철)	4	元符	● ●
	현령공종회(회장:성보)	5	天柱	● ●
도총제공파	도총제공종회(회장:민섭)	5	仁鳳	● ●
판사공파	판사공종회(회장:정섭)	5	義龜	
지성주사공파	지성주사공종회(회장:상록)	5	繼年	●
인수부윤공파	인수부윤공종회(회장:정구)	5	澄	
인수부윤공파	곡성종회	9	淳	
	정랑공종회	9	澧	
	내금위공종회	11	滉	● ●
	절도사공원강종회	12	元剛	● ●
	군수공종회	13	俠	
	우발종회	13	儻	
	참판공종회	14	之治	
	적공파종회	15	橘	
	청평도위공종회	15	益顯	
	좌승지공종회	15	欄	
	통천공종회	16	廷로	
	동지문령공종회	16	廷紀	
	함흥공종회	16	廷最	●
	현재공종회	17	師正	
	성천공파오남종회	18	謙鎭	
	익모공종회	20	益模	●
	노학공종회	21	魯學	
청만공파성신공종회	22	遠朋		
안효공파	안효공종회(회장:상덕)	5	溫	●
안효공파	영중추공	6	漣	
	수사공종회	10	巖	●
	임천공종회	10	鎭	
	양지공파 임피종회	10	業	● ●
	진사공파종회	11	友俊	
	청계부원군종회	11	友勝	
	군자감주부공파종회	12	沃	
	양지공좌승지공종회	12	淑	
	수찬공파고척종회	12	譚	●
	용난재공종회	13	得進	
	공숙공종중	6	澹	● ●
	이경공종회	7	瀚	●
	판관공종회	7	浚	● ●
사인공종회	8	順門		

종회별 찬조 내역을 감사의 뜻으로 확인해 주시고 성원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종회는 (●)으로 표시하였으며, 하기 내용 중 이상이 있는

종회는 대중회 재무담당에게 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0일
(대중회 재무/문화이사)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정보
안효공파	수찬공종회	9	達源	●
	효창공종회	9	達源	●
	좌의정공종회	9	通源	●
	정수종회	10	凝	●
	첨정공종회	10	鎡	●
	곡산공종회	10	鎡	● ●
	청양군종회	11	義謙	
	풍덕공파종회	11	筍	●
	생원공파	11	蓉	●
	광주금당산종회	11	友賢	
	선무공신종회	11	友信	●
	사어공파종회	11	友寬	●
	도사공파종회	11	友仁	●
	성천부사공종회	11	禮謙	●
	정랑공파종회	11	智謙	●
	부평공종회	11	信謙	
	충익공종회	11	忠謙	● ●
	신천공종회	11	孝謙	● ●
	신천공파추천종회	11	"	● ●
	수운판관공종회	11	悌謙	●
	찰방공파종회	12	仁祺	●
	정언공파진월촌종회	12	仁禧	● ●
	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회	12	協	● ●
	김포군수공파종회	12	慣	●
	참판공종회	13	廷世	
	선교량파	13	廷熙	
	정강공파마산종회	13	廷江	●
	광주부윤공선산종회	14	楡	●
	장사랑공파종회	14	松直	●
	신천공김포현공종회	14	攢	●
	무숙공파종회	14	松茂	●
	증참판공종회	15	漢弼	
	광주금당산송암종회	15	瑛容	●
광주금당산벽암종회	15	瑳容		
광주금당산두암종회	15	瑛容	●	
신천공지경종회	15	壽漸		
양순공파종회	16	養淳		
청현공종회	17	宅賢		
제철공종중	17	濟喆		
만중공종회	18	萬重	●	

파 명	산하종회	世	諱	찬조여부 장학 정보
안효공파	통훈대부공종회	18	鎰	
	생원공파법공종중	19	燁之	● ●
	정랑공파마산종회	19	宣之	
	정이공파	6	決	●
정이공파부사공종회	11	源海	● ●	

▶ 지역종회 및 종친회

지역	종회명	찬조여부 장학 정보	지역	종회명	찬조여부 장학 정보
서울	남서울종회	●	충남	청주종회	● ●
	서서울종회	●		청주청송회	●
	동서울종회			공주종회	
	영등포종친회	●		당진종회	
	청송골프회	●		부여종회	
부산	부산종회	● ●	전북	전북종회	● ●
	부산청송회	●		전북청송회	● ●
	부산청년회	●		익산종회	● ●
				정·고·부 화수회	●
대구	대구종회	● ●	전남	임·순·남종회	
	대구 청·장년회	● ●		순천종회	
인천	인천종회	● ●	경북	함평종회	●
	청인회	● ●		여수종친회	● ●
광주	광주청광회	● ●	경남	구미종회	● ●
	대전·충남지구종회	● ●		성주종회	● ●
대전	대전화수회	● ●	울산	안동종친회	● ●
				안동청년회	●
울산	울산청년회	● ●	강원	안동오평종친회	
	울산청송회	● ●		김천지역종회	
경기	삼척종회	● ●	경북	정송청년회	
	원주·횡성종회	● ●		고성군종친회	●
	금화종회	● ●		진주종회	● ●
	춘천종회	● ●		통영종회	● ●
충북	김포종회	● ●	해외	함안종회	● ●
	부천종회	● ●		합천종회	● ●
	성남종회	● ●		미주종회	
	안성종회	● ●		일본종회	● ●
충북	장호원종회	● ●	인터넷	캐나다종회	● ●
	용인종회	● ●		인터넷종친회	
충북	제천·단양종회	● ●	충북	증평종회	
	증평종회	● ●			

제 향 성 금 내 역

(대중회 주관 5처모소 준향성금)

◎ 시조 제향성금

도총제공파종회	200,000원
인수부윤공파종회	300,000원
안효공파종회	1,000,000원
현대자동차심씨종회	300,000원
철원종회	200,000원
포사취여사	200,000원
원주·횡성종회장	100,000원
김포군수공종회	100,000원

◎ 2세조 합문지후공 제향성금

도총제공파종회	100,000원
인수부윤공파종회	300,000원
안효공파종회	300,000원
효창공파종회	200,000원
양지공파 임피종회	200,000원
정이공파 부사공종회	200,000원
울산내금위종회	200,000원
광주덕림문중	100,000원
전북종회원	100,000원
전북 청송회	100,000원
대전·충남지구종회	100,000원

◎ 3세조 청화부원군 제향성금

도총제공파종회	100,000원
인수부윤공파종회	300,000원
안효공파종회	300,000원

◎ 4세조·4세조비 제향성금

도총제공파종회	100,000원
인수부윤공파종회	300,000원
안효공파종회	300,000원
광주청광회	300,000원

任 員 會 費

3,000,000	의락 (대중회 회장)
200,000	상렬(감사)
50,000	윤섭(경기), 상대(경기), 완규(경기), 재만(경기) 상렬(경기), 재문(경기), 종욱(경기), 응하(경기) 석용(경기), 재근(경기), 남규(경북), 상학(경북) 재욱(경북), 재호(경북), 흥섭(대구), 호웅(대구) 은식(서울), 의표(서울), 태섭(서울), 종복(서울) 형무(인천), 재석(인천), 정식(전남)

總 會 贊 助

500,000	안효공종회(회장:상덕)
300,000	인수부윤공종회(회장:정구)
200,000	대구종회(회장:홍섭) 울산내금위종회(회장:영구)
100,000	진주종회(회장:기조) 남서울종회(회장:상직) 선산종회(회장:우정) 대전·충남지구종회(회장:현근) 안동종회(회장:재덕) 춘천종회(회장:인섭) 덕섭(경기), 재득(서울), 영섭(경기) 재덕(경북)
30,000	대용(서울)

2013년 예산對 실적 (2013년 5월 현재)

구 분	예 산	실 적	달성률
종보찬조	32,000,000원	11,280,000원	35%
임원회비	18,200,000원	12,300,000원	67%
장학기금	2,000,000,000원	152,060,000원	7%

獎 學 金 贊 助

30,000,000	상균(부산) 대중회이사
5,000,000	재열(감사)
500,000	마산수운판관공파소종중회(회장:순보)
300,000	인천종회장(응무) 진천월촌종회(회장:재덕)
220,000	삼척종회(회장:무식)
200,000	원강종중(회장:우관)
60,000	강채(전남)
50,000	재환(경기)

宗 報 贊 助

500,000	캐나다종회(회장:상욱)
300,000	광주금당산두암종회(회장:현섭) 철원종회(회장:상하) 수운판관공파마산소종중(회장:순보)
200,000	심의(대구) 임피종회(회장:재양), 인천종회(회장:응무) 내자시판관공종회(회장:상렬)
100,000	상순(경기), 옥택(경남), 언촌(경기) 어택(서울) 원강종중(회장:우관), 진주종회(회장:기조) 대구종회(회장:홍섭) 경남고성종친회(회장:재화) 정이공파어버리종친회(회장:석용)
50,000	태규(경기), 심훈(서울), 대용(서울) 상승(경기), 의복(삼척), 재운(삼척) 영섭(인천), 춘천종회(회장:인섭)
30,000	재남(대구)
20,000	의진(서울)

관향(貫鄉) 소식

▼자료제공



沈南圭
종보편집위원
대중회 이사

『제7회 청송심씨 경친 다짐대회』 및 『5월 단오 맞이 청송심씨 종친가족 한마음 대축제』 행사

우리 민족 명절인 5월 단오절을 맞아 본향(本鄉) 청송에서 「제7회 청송심씨 경친다짐대회」 및 「청송심씨 종친가족 한마음 대축제」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일가간에 친목과 화합의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시 : 2013년 6월 15일(토) 11:00~16:00
- 장소 :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경의제)
- 주관 : 청송심씨 청송청년회

대중의 인사발령



상영(신임고문)
□경력
• 대중회 이사
• 익산종회장
• 2013. 4. 22일부



상각(신임고문)
□경력
• 前 지성주사공과 회장
• 2013. 6. 1일부



상렬(신임감사)
□경력
• 대중회 이사
• 대중회 편집위원
• 現 광운대 교수
• 2013. 5. 14일부



수영(신임총무)
□경력
• 대중회 이사
• 대중회 편집위원
• 전주양지초등학교 前교장
• 2013. 5. 16일부



홍섭(연천 신임유사)
• 2013. 6. 1일부

沈魚澤先生 白壽宴



▲ 어택 고문 백수연에 대중회 회장단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구미종회 임원진개편

- 회장 : 재홍 - 부회장 : 창석
- 총무 : 규인 - 재무 : 상일 - 감사 : 우석

경남고성종친회 임원진개편

- 회장 : 재화 - 부회장 : 진표 성보
- 총무 : 상우 - 감사 : 재호 영보

일가들의 단합모임

생원공(蒼)종중 단합대회

2013년 4월 27일 파주시 월릉면 도내리 임진강 민물매운탕 식당에서 공숙공 5대손인 생원공(용)과 종중임원 개선(회장:백강교수) 후 종재관리의 철저와 일가들의 화합조성대책회의를 갖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가들의 정을 나누었다.

■ 임원진(12명)

- 회장 : 백강 / 감사 : 광섭 / 총무 : 이섭
- 이사 : 총택, 상철, 상욱, 웅섭, 계섭, 재서, 재열
- 형보, 완보



▲ 4월 27일 임진강 민물매운탕 식당에서 단합모임

祝 박사학위



심효정
대중회 갑보 부회장의 차녀
일본 동경의 명문 오차노미즈여자
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음악이론전
공) 박사학위 수여



심상무
동의대 총장 취임
6세조 恭肅公派



심영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합춘대상
<사회공헌부문> 수상



심지원
독일 뮌스텐대 철학박사 학위수여
父. 김포약산 우섭



심홍식
경기대 정치학박사 학위취득
울산내금위공종회
父. 수길(대중회이사)



심민보
동아대 경영학박사 학위수여
울산남계공 9세손 내금위공종회
父. 방식



심규열
동의대 법학박사 학위수여
울산내금위공종회
父. 성보(부산)

安孝2013-第45號

公 告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 開催

2013년도 安孝公(諱:濫) 단오절사 봉행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 단오절사 봉행
오전 11시 - 정기총회 개최
2. 장소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01번지
(안효공 묘전 및 재실)
3. 정기총회 주요내용(부의안건)
1) 2012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 2012년도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3) 2013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4) 2013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5) 의결권 위임 승인의 건
6) 총회 회의록 승인 서명자 선출의 건
4. 기타 : 전국 각지역 및 지파총회에서 단체로 참여하
실 경우는 참석인원을 사전에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253-8060, 8040
▷팩스 : 031-254-8066

2013년 5월 30일

靑松沈氏 安孝公宗會長

공 지 사 앙

- 대중회에서는 종인들께 책자를 무차별 발송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강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명<대동보감>이라는 책을
배송 받았고, 금액은 20만원으로 우체국 계좌로 입
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중회에서
발간한 것이 아니며, 대중회를 사칭한 자들이니 절
대로 구매하지 마십시오. 받은 책자는 착불로해서
반송시켜야합니다.
모쪼록 종인들께서는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사·사망 등으로 종보수령 주소지 변경 시 대중
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건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 청송심씨종보는 격월 발행지로 홀수월 30일 발행
됩니다.
- 인터넷족보 신청접수는 등재비용 과다로 2015년
등재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 이사회 및 총회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 종보 구독은 대중회로 팩스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대중회 배지 구입은 20개 단위로 신청하시면 택배
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경진보 족보는 대폭 할인하여 10만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임원회비 미납입 임원께서는 입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각종 찬조금 종보 공지에 착오가 있을시 필히 대중
회 재무담당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송 | 금 | 안 | 내 |

任員會費·宗報贊助·獎學贊助·族譜代金 등 입금구좌
• 청송심씨대중회
농협 : 301-0107-5873-71